



2017-62

「정치」

트럼프 시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관계 향후 전망

중남미

정이나 HK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주요내용

- (미국-베네수엘라 외교관계 현황) 양국 관계는 1999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 관계 개선의 기대를 모았던 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2017년 미국 극우 정치인 트럼프 집권이 양국 외교 관계에 미치는 변화가 주목되고 있음.
- (원인과 분석) 두 국가의 외교 관계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분명한 정치적 노선과 미국 자본주의의 이념 대립이 야기한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었음. 두 국가의 체제 유사성이 형성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전망과 시사점) 현재 양국의 외교는 충분히 파행적이며 관계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내 불안정 요소는 두 국가의 새로운 이해 관계 충돌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큰 변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1. 이슈 현황

▶ (미국-베네수엘라 외교관계 현황) 양국 관계는 1999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 관계 개선의 기대를 모았던 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2017년 미국 극우 정치인 트럼프 집권이 양국 외교 관계에 미치는 변화가 주목되고 있음.

□ 2017년 미국 극우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 양국 관계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집권으로 기대를 모았던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오히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15년 베네수엘라의 국가위기를 선포하며 ‘인권침해’ 및 ‘정치탄압’을 명분으로 제재를 가한 바 있음.
- 이 제재 조치는 2016년 다시 1년 연장 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며, 여전히 유효한 조치임.
-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베네수엘라는 엄연한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항의함.
- 이 조치의 발단인 구아림바(Guarimba)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난 반정부 폭력 시위로, 참가자들이 길을 막고 바리케이트를 이용한 거점 확보 방식의 시위였음.
- 이 과정에서 43명이 사망하고 8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음.
- 구아림바는 2014년 마두로 대통령 퇴출(La salida) 기획의 일환으로 조직된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시위 가담자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극우 정치인 레오폴드 로페스를 구속하였음.
- 이에 반정부 언론 매체와 미국의 주요 언론은 레오폴드 로페스 구속을 정치 탄압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치박해를 주장하였음.
- 한편 2014년 당시 반정부 극우 폭력시위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희생자 가족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발족하였으며, 현재 야당이 국회에 상정한 “처벌면책 및 화해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¹⁾

□ 현지 시각 지난 2월 13일(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아이사비 부대통령을 마약 거래 혐의로 제재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그의 미국 비자를 무효화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을 비롯한 금융 및

1) 남미대안방송 Telesurtv.net(검색일: 2017.2.15)

상업 거래 등 여타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

- 아이사비 부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불법적인 제재라며 강력히 항의함.
- 아이사비 부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를 주요 마약 거래 국가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려는 시도 직후에 취한 비열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미국의 어떤 도발 행위에도 흔들림 없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 수호를 위한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일갈함.
-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 정부에게 이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자국 부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함.
-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재무부의 이 같은 제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이라 규탄하고, 과거 미국 정부가 쿠바 민중들에게 취한 범죄적인 금수 조치와 같은 것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함.

2. 원인과 분석

▶ (원인과 분석) 두 국가의 외교 관계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분명한 정치적 노선과 미국 자본주의의 이념 대립이 야기한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었음. 두 국가의 체제 유사성이 형성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20세기 줄곧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전형적인 친미 국가였으나, 1999년 우고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양국 외교관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
- 1920년대 베네수엘라에서 발견된 유전은 당시 미국 정유 회사였던 스탠다드 오일 컴패니(Standard Oil Company)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원유에 대한 지배권은 미국 자본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음.
- 석유 수출로 얻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경제구조의 특징인 지대국가(rentier state)의 기반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함.
- 세계적으로 원유가 풍부한 나라임에도 분류하고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은 결국 1989년 카라카소(Caracazo)로²⁾ 이어짐.
-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 정치권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과두지배 정치 세력이 아닌 군인 출신의 우고차베스가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되는 배경이 되었음.
- 집권 이후 줄곧 우고 차베스가 천명한 반미·반제국주의적 정치 노선은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

2)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치솟는 물가와 사회안정망 해제로 인한 사회불안에 대한 불만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 구아레나스에서 시작된 대중 봉기가 수도로 확산된 사건으로, 당시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의 시민이 사망한 사건을 일컫음.

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인 PDVSA 국유화로 미국 자본의 영향력을 대폭 감소시키는 조치로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름.

-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급진적인 경제개혁과 정치권력구조의 재편은 베네수엘라 과두지배계급의 강렬한 저항을 받았으며, 2002년과 2003년 두 번의 쿠데타에 미국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차베스 체제의 반미·반제국주의 노선이 더욱 공고히 되었음.
 - 2002년 4월 쿠데타는 전형적인 정치쿠데타로 차베스 대통령을 납치 감금한 사건으로, 베네수엘라 전경련 회장 페드로 가르모나가 일부 군부 세력과 함께 스스로 대통령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음.
 - 베네수엘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쿠데타는 무산되었으나,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던 콜린 파월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지한 바 있음.
 - 2003년 12월 경제 쿠데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 PDVSA의 경영 지도부와 노조 상층부가 결합하여 일으킨 자본가 파업으로 약 2개월 동안 원유생산이 중단되며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음.
 - 원유 생산 기술 및 경영 주도권이 미국 자본에 있었던 만큼 당시 석유 파업의 미국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갈등이 고조되었음.
-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선거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는 CNN과 같은 외신에 대해 비판과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현재 야권의 주요 극우 정치인 레오폴드 로페스는 미국 CIA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미국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인물로, 베네수엘라 주요 반체제 인사임.
 - 뿐만 아니라 CIA 요원의 주요 교육기관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CIA의 전 국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02년 이후 수시로 워싱턴을 드나들며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부시 행정부와 교류하며, 2002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는 인물임.
- 25년간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1987년 후진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야 했을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으며 교육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새로운 군부 정권, 국가 법 복구 위원회(SLOFC)가 1988년 새로이 집권하였으며 미얀마의 초기 경제 개혁을 주도했음. 과도기적 미얀마 경제 개혁의 주요 목표는 :

- 자원 배분 및 상품과 서비스 분배를 위한 시장 지향 시스템 채택
- 국내에서의 사적 투자 및 기업 활동 독려
- 수출 촉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개방

- 1996년 이래로, 새로운 군부 정부인 SPDC는 4개의 경제 목표를 발표했음.
- 전 분야 발전의 기반으로서 농업 발전
 - 적절한 시장 지향 시스템 평가
 - 국내외 기술 노하우 및 투자 측면에서의 경제 참여 발전
 - 국가 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국가와 국민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함.

3. 전망과 시사점

▶ (전망과 시사점) 현재 양국의 외교는 충분히 파행적이며 관계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내 불안정 요소는 두 국가의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큰 변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 관계는 지난 20년간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얼마 전 베네수엘라 부대통령 아이사비에 대한 제재조치는 향후 양국 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또한 베네수엘라 주요 반체제 인사가 미국 정보기관인 CI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 등은 여전히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장애요소임.
- 최근 CNN은 이라크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비자와 여권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미사일 로페스의 증언과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요지의 방송을 한 바 있음.
- 이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 델리 로페스는 CNN의 이 같은 의도적인 거짓 방송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음
 - CNN에서 증언한 미사엘 로베스는 이라크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재직 당시, 대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금을 인출하려다 바그다드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 걸리자 미국으로 도주한 인물로 알려짐.
 - 그는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스페인 국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네수엘라 주요 반체제 인사인 레오폴드 로페스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국의 긴장 관계는 상반된 체제 성격으로 인한 것으로, 첨예한 외교적

대립은 불가피하며, 이 같은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트럼프의 극우적인 주요 경제 및 이민 정책이 미치는 영향권에서 다소 거리가 있고, 현재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 요소도 적지 않은 만큼 이미 최악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새로운 갈등 유발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따라서 2017년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례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갈등이 형성되는 큰 변수가 생기기 않는 한, 양국 외교관계의 개선은 물론 크게 악화되지도 않은 채 현재의 긴장된 외교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EMERiCs**

출처

- TelesurTV.net(남미대안방송), CNN Español.com, Ultimas Noticias(베네수엘라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매체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